



4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및 주요 내빈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진 한국언론학회 회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필호·장대한 한국신문협회 고문,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 회장, 문 대통령,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방상훈 한국신문협회 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문 대통령 “신문은 사회의 거울…국민의 기대 커” 이 회장 “신문읽기, 품격 있는 나라 향한 첫걸음”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축하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축하연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공간은 인터넷이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읽고 있다”며 “신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종이신문 구독률과 열독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언론환경일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거울인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신문은 존경받는다”며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초로 한 비판, 국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제설정 등은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고 밝힌 뒤 “신문과 신문인이 언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스스로 혁신해 나간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반석인 신문은 뉴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소중히 키워가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신문읽기는 민주시민의 즐거움인 동시에 신문읽기가 일상이 되는 사회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라

고 말했다.

이날 축하연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진 한국언론학회 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연에서는 ‘2019 한국신문상’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뉴스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보도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와 ‘예멘인 난민 입국’을 보도한 제주新보 좌동철, 홍의석 기자가 수상했다. 기획탐사보도 부문에서는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외 3명이, ‘난개발 그늘, 해안의 역습’을

보도한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 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열렸다.

이병규 회장은 대회를 통해 “고품질 저널리즘에 대한 목표는 선진국 언론도, 우리도 마찬가지”며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폭넓게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저널리즘이 신문인의 긍지요,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신문이 민주사회의 중심매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신문과 기자를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풍토 조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김종구 회장은 기념대회 개최사에서 “신문사마다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공들여 쌓아갈 때 독자들의 신뢰도 자연히 돌아오리라 믿는다”며 “신문의 날이 신문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손잡고 나아가자는 다짐의 날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대회에서는 신문협회 상 수상자, 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각각 열렸다.

▶관련기사 2~5면

“신문은 대표 문화콘텐츠…구독료 소득공제 당연”

“신문사는 소득공제 시행할 준비 다 돼 있다”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서 강조

신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지

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내용이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

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1주제인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에 관한 발제를 통해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

위원에 따르면, 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4월 4일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자들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해 3.61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

혔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는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길 경우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신문 구독자의 47.5%는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4면에 계속

“신문은 국민과 국가의 힘… 언론 使命 다하길”



측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문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제63회 신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문’을 생각하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른 아침,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신문을 접어드는 것은 그날그날의 세상 소식을 ‘처음’ 만나는 일입니다.

신문은 또한 민주주의의 ‘처음’입니다. 영국 명예혁명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가 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신문은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서재필 선생이 발간한 최초의 민간 신문 ‘독립신문’은 120여 년 전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여성의 권리를 내세웠고, 더 많은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발행했습니다. 3·1독립운동 당일 발행된 ‘조선독립신문’ 1호는 독립선언 발표 소식을 국민께 ‘처음’ 전했으며, 3월 3일 제2호에서는 ‘국민대회’를 열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1919년 8월 21일 기관지 ‘독립신문’을 내고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소식을 국민께 알렸습니다.

신문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사에 담긴 신문인의 양심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1936년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우고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던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독립 의지를 북돋는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찍어 특종으로 보도한 김주열 열사의 사진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양심이 담긴 공동 사표가 2만 장의 호외로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골

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줄도 신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독재와 검열의 시대에 보여준 신문인의 용기있는 행동은 고립된 광주시민에게 뜨거운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촛불혁명 역시 우리 신문들의 보도를 통해 가장 평화롭고 민주적인 혁명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모두 신문과 보도의 힘입니다.

언론 자유는 결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신문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신문을 압수하거나 정간, 폐간시키는 일제와 싸웠습니다. 보도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기사에 빨간줄을 죽죽 그었던 독재와 싸웠습니다. 백지광고로 저항하고, 수백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해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으로 국민의 눈을 막고 진실을 가렸지만 우리 신문인은 결코 붓을 꺾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도 우리 신문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권력의 검열로 신문이 제대로 진실을 전하지 못했던 시기에도 국민들은 1면 톱기사가 아닌 구석의 1단짜리 작은 기사에서 더 큰 진실을 읽어냈고, 심지어 미처 말하지 못하는 기사의 행간에서 진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신문인의 양심을 지켜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습니다.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많은 해직 기자들이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실한 보도, 공정한 보도,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신문이 극복해야 할 대내외적 도전도 여전합니다.

첫째,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인정받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 자유지수(PFI)에서 한국은 2006년 31위를 기록했지만, 2009년 69위, 2016년 70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3위, 2018년 43위로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정치권력 외에도 언론자본과 광고자본, 사회적 편견, 국민을 나누는 진영논리, 속보 경쟁 등 기자의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둘째, 신뢰에 대한 도전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신문이 되고 방송이 되는 시대입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독자가 읽던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낱알이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은 정보의 유통속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신문과 신문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셋째, 공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모바일로 뉴스를 접할 정도로 뉴스를 보기 위해 신문을 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켜는 것이 익숙한 세상입니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보도했는지, 어느 신문사의 클릭 수가 많은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 깊이 없는 보도가 많아지고 완성되지 않은 기사가 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종이신문 구독률과 열독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언론환경일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줄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이용하는 공간은 인터넷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신문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신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언론 자유의 토대입니다. 신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인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누릴 때, 신문도 본연의 사명을 다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신문은 존경받습니다.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초로 한 비판, 국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제설정,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럴 때 국민의 이익이 커지고,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 신문과 신문인이 언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스스로 혁신해 나간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 역시 변치 않고 지속할

“신문은 뉴스 이상의 가치… 국가적 자산”



환영사
(전문)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

먼저, 바쁘신 국경에도 불구하고시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 신문인 모두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국신문상 수상자 여러분께는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문의 날은 1896년 4월 7일 창간한 독립신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독립신문은 일제강점기 국권 수호와 민권 신장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대변했습니다. 그 정신은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마침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신문인들은 새로운 각오와 함께 신문의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현안 속에서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문제작 환경은 갈수록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뉴스를 보는 경로가 달라지면서 독자와 신문의 상호관계에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도 많지만, 미디어시장이 사 이비 유사언론과 가짜뉴스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퇴행적 정보소비 풍토와 결합돼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이성과 판단력, 통찰력을 마비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해칩니다. 어둠은 빛으로 밝히듯이, 가짜뉴스는 정론신문이 빛을 발하고, 힘을 내야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2004년 이후 1800개 이상의 지역신문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뉴스의 사막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지역신문 폐간으로 해당 지역의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상태는 악화되었으며, 환경오염마저 심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문의 실종’은 정치·경제·사회적 손실이자 재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어제 신문의날 기념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인 신문이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 이유입니다.

신문은 우리 사회가 소중히 키워 가야 할 ‘국가적 자산’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반석인 신문은 뉴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인 ‘신문 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내는 안목’은 신문의 가치를 간결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문읽기는 민주시민의 즐거움입니다. 신문읽기가 일상이 되는 사회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것입니다.

신문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신문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힘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정부의 목표, 신문의 목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문인의 양심이 자유롭게 발현되고, 신문이 힘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

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신문이 국민과 함께 역사의 질곡을 헤쳐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혁신적 포용국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신문의 날 기념행사 화보

1.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내빈들이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연에서 건배하고 있다.
2.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마련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언론전시회'의 개막식(4월 1일, 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이병규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3. 4일 신문의날 기념대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는 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인들.
4. 신문의날 기념연 입구에서 내빈을 맞고 있는 발행인들.



“신문의 가치, 고품질 저널리즘과 독자 소통에 있다”

기념대회 대회사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

먼저, 신문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시는 전국의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좋은 신문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동료 신문인 여러분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문의 날 표어 수상자와 회원사 우수사원 여러분께는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산업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뉴스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통신문에 큰 도전입니다. 독자들의 정보수요는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서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이 전면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근 해외에서 전해진 소식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신문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 신문사들의 디지털 유료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등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품질 저널리즘과 독자와의 소통입니다. 우리 신문인들이 매년 이 자리에서 다짐해 온 대로 신문의 기본적 가치를 지향하고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그 해법인 셈입니다.

고품질 저널리즘에 대한 목표는 선진국 언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

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폭넓게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저널리즘이 신문인의 긍지요,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자는 언제나 우리 신문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반석”이라고 말해 왔지만, 우리와 독자의 ‘관심의 방향’이 늘 일치했는지는 냉철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기사의 포맷이나 외형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독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감동의 소통’,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

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지역 신문의 고충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신문은 현재 인터넷포털에서 연예 전문 매체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신문 차별은 지역신문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정, 산업, 문화, 환경, 교육 등 지역사회 전 영역의 낙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포털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신문이 민주사회의 중심매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문과 기

자를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풍토 조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문읽기가 말 그대로 ‘시민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는 ‘신문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내는 안목’입니다. 표어처럼 신문은 앞으로 부분과 전체, 주변과 중심을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기사로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을 신문인들이 함께 다짐하기를 제안하면서 대회사에 갈음합니다.

“신문, 가짜뉴스 범람과 홍수 피해 막을 방파제”



기념대회 개회사

김종구 편집인협회 회장

오늘은 예순세 번째 맞는 신문의 날입니다. 그동안 신문을 믿고 아껴주신 국내외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문의 날은 가장 기쁘고 경

사스러운 날입니다. 보람과 자부심으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 해를 거듭할수록 신문의 날을 맞는 마음은 기쁨보다는 무거움, 희망 보다는 답답한 심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문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 이외에도 정보 생산자는 수없이 넘쳐납니다. 뉴스는 끊임없이 복제돼 유통됩니다. 지금처럼 뉴스 소비자가 많은 적도 없었지만, 역설적으로 신문에서 만드는 상품이 지금처럼 헐값으로 유통된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언론에 대한 신뢰의 위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신뢰

의 위기는 신문사 차원을 넘어 언론계 전체가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신문에서 희망의 빛을 봅니다. 오늘 ‘한국신문상’에 선정된 영예의 수상작들이 그 증거입니다. 단지 수상작들뿐이 아닙니다. 수상의 영예는 누리지 못했지만 후보로 오른 기사들 하나하나가 여전히 변치 않는 신문의 존재 의의를 웅변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우리 사회를 더욱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역할의 맨 선두에는 여전히 신문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는 ‘신문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내는 안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

전히 독자들은 신문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안목을 넓혀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세상을 읽는 더욱 정직한 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정확하고 진실한 보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논평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 위기 극복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 출발점은 언론계 바깥이 아니라 내부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끼리 믿지 못하는데 독자들이 신문을 믿을 리 없습니다. 신문사마다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공들여 쌓아갈 때 독자들의 신뢰도 자연히 돌

아오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격변과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숨 가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신문의 역할은 더욱 막중합니다. 가짜 뉴스까지 넘치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뉴스의 범람과 홍수 피해를 막을 방파제는 신문밖에 없습니다. 험하고 설친 미로 속에서 바른길을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신문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문의 날이 신문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손잡고 나아가자는 다짐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연장에 입장하며 발행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6. 신문의날 기념연에서 내빈들이 이병규 회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7. 무분별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한 부산일보의 '난개발 그늘, 해안의 역습' 취재팀이 한국신문상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8. 신문협회상 수상자들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9. 신문의날 기념연을 취재하는 신문·방송사 기자들.

“신문은 대표 문화콘텐츠…구독료 소득공제 당연”

▶1면에서 계속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는 그 동안 신문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으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이유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의 실현을 위해 △종이·인터넷신문의 판매기관 전수조사 △인터넷신문 전자 바코드 시스템 도입 △카드·현금·지로 등 결제 수단별 결제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방안=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2주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방안’ 발제에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평균 153억7천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 구독자에 대한 세수는 감소하지만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며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인 광고산업, 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고, 고용증대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신문 구독료 공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3년(2020~2022년)간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②과세기간 동안 구독계약서에 의하여 지출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③연간 3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00조(신문구독료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동안 구독계약서에 의하여 지출한 신문 구독료의 연간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신문구독료공제”라 한다.



3일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김위근 선임연구위원과 정지선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 교수,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사회), 김 연구위원,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맹호 중앙일보 마케팅 DS담당.

◆토론=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만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국장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은 오랫동안 논의돼 오고 있는 사안이다. 도입 명분이 아닌 실행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아니며, 문제부도 마찬가지로 있다. 다만 지금 실행할 준비가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가 고민이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도서의 경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 유통 바코드가 있고, 유통 및 결제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신문은 도서에 비해 유통 및 결제시스템이 복잡하고, 이 때문에 아직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뒤 “따라서 △소득공제 제도를 실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하며, △소득공제 시행 시 지로, 카드, 개별 판매 등 구독료 결제방식에 따라 여러 유관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신문 산업의 건강성 확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신문은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자유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다양한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적 자유의 본질요소인데, 우리 신문은 ‘합리적인 다양한 방안’을 뉴스로 제공하기 힘든 경제적 압력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특히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이런 신문산업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판단된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각 개인이 육체적 건강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고 나아가 새로운 소득 창출 기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각 개인이 이용하는 정보 이용 및 정신 세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고 강조했다.

김 맹 호 중 앙 일 보 마 케 팅 DS(Distribution)담당은 신문사 입장에서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은 유료 부수 절독 감소 뿐만 아니라 신문 공적 기능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DS담당은 “신문사는 신문 현

황을 고려해볼 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방법은 독자가 센터(지국)에 신청하면 센터가 소득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며 “현재도 일부 신문사에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연말정산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DS담당은 또 “소득공제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VAN사(결제대행업체)와 신문사간 계약을 통해 신문사 자체 고객관리 시스템에 국세청 전송 환경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것이다”며 “이는 신문협회 차원에서 군소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전점검 및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신문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서구입비는 소득공제가 되면서 신문이 제외된 것은 의문이었다”면서도 “신문산업 내부의 거래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조세당국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총장은 이어 “소득공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도입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신문도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여 독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 5월 의회선거 ‘가짜뉴스’ 검증 프로젝트 가동

유럽 13개국 19개 언론사 연합
美 포인터연구소 등 ‘팩트체크’에 후원

올해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연합(EU) 13개 회원국 19개 언론사가 연합해 선거 관련 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EU(Factcheck EU)’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미국의 언론연구기관인 포인터연구소에 따르면, 언론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후보자들의 발언 및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에 대한 사실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웹페이지를 통

해 독자에게 직접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응답하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U는 별도의 웹페이지(<http://factcheckeu.info>)를 통해 각 언론사가 실시한 EU의회 선거와 관련한 팩트체크 내용을 공개한다. 독자들은 사이트 내 Q&A 섹션을 통해 정보에 대한 사실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각 언론사는 자국의 언어로 제작한 기사를 원문 그대로 제

공하고 다른 국가의 독자를 위해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EU 기관이나 정부 등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플랫폼은 포인터재단으로부터 5만 달러(한화 약 5,668만 원)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 및 프랑스 디자인업체인 데이터짚(Datagif)이 제작했다. 또한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급여 및 기사 번역비용은 구글,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등이 후원한다. 국

제팩트체크네트워크는 2015년 포인터가 설립한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을 위한 포럼이다.

한편, 페이스북 역시 EU의회 선거 기간 중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최대 통신사인 DPA,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코렉티브(Corrective)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1월 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제보 받아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NYT는 지난해 9월 17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대통령 임기 중

간에 실시되는 선거로 상원과 하원을 선출)와 관련해 정치적 허위 정보나 거짓 주장을 인터넷 플랫폼에 퍼뜨려 지역, 주(州) 및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온라인 광고, 포스트, 게시물 등에 대한 독자 제보를 받았다.

이를 위해 사이트 내에 허위정보 제보 페이지를 개설하고, 의심스러운 포스트나 글을 발견하면 url과 스크린샷(screenshot)을 업로드 하도록 했다. 이후 기자들은 독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통해 허위정보 진위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뉴스링크 시 언론사에 대가 지불

유럽의회, 새 저작권법안 승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뉴스를 링크할 경우 언론사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3월 26일(현지시간)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AP통신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4월 말로 예정된 유럽이사회에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EU 회원국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회원국들은 이후 2년 이내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자국 법률에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앞으로 언론사 기사를 게시할 경우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유럽의회는 ‘단일 단어나 매우 짧은 발췌문’ 이상을 게시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매우 짧은’ 발췌문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또 위키피디아 같은 비영리기관이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 저작권법은 또 구글, 페이스북 등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스스로 걸러내도록 하는 ‘업로드 필터’ 설치도 의무화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향후 ‘업로드 필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차단하는 콘텐츠의 기

준은 무엇인지 등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럽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불법 콘텐츠 차단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대형 IT기업들은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거두면서도 적은 세금을 냈다”면서 이

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자드 카림 영국 유럽의회 의원도 “개정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IT기업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개정안이 법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트위터도 이번 투표가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63 신문의 날 축하연 주요 참석자 (가나다 순)			
정관계			
강규호 문화체육관광부 비서관	권도호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이향숙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위정환 MBN 보도국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권문현 한국신문인크 사장	장부영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장	유권하 코리아중앙데일리 편집인
박상훈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이 유 연합뉴스 마케팅본부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교미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전평국 한국언론인연합회 회장	이도성 경남신문 서울지사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김기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사장
선근형 인사혁신처 대변인	김기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정대필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유통국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고문
유민영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김성령 대한언론인회 상담역	정용석 대한언론인회 이사	이성진 경북일보 서울지사장
유승하 춘추관장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최대식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기획실장	이승진 한겨레신문 상무이사
윤도한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김용발 대한언론인회 이사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 독자불만처리위원	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주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수 대한언론인회 이사	언론계	이인규 투데이코리아 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정국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장		이정희 부산일보 서울본부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중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강동형 서울신문 이사	이종규 전북도민일보 서울지사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종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	강해인 경기일보 서울지사부국장	이학영 한국경제 상무이사
조한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철훈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김경령 부산일보 서울지사 부장	임금택 광주일보 서울지사장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명완 매일경제 총무국장	장길영 전북일보 서울본부장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	박 실 대한언론인회 이사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	장대한 매일경제 회장
황인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보좌관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상담역	김의철 KBS 보도본부장	장병문 더팩트 지회장
학계	박형철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장	김정옥 매일경제 편집국장	장승준 MBN 사장
	방문신 관훈클럽 총무	김중운 브릿지경제 경영지원국장	전지현 매일경제 문화부 차장
김택환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백환기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김주영 매일경제 문화부장	정희경 머니투데이 전무이사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김진택 브릿지경제 광고본부장	조병우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손동우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김필수 (주)헤럴드 기획조정실장	조정훈 조선일보 총무국장
이 연 선문대학교 미디어학과 명예교수	안병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	조진래 브릿지경제 편집국장
이재진 한국언론학회 회장	안평선 대한언론인회 상담역	김희준 세계일보 비서실장	조형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경제계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남영진 한국기자협회 고문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오광택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	류호길 MBN 대표이사	황순우 매일경제 기획실 차장
강규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위원	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전직 발행인	김성기 전 국민일보 발행인
권용석 대상 홍보실 상무	윤익환 대한언론인회 상담역		김진현 전 문화일보 발행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명재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장	노승국 전 국민일보 발행인	박성덕 전 전자신문 발행인
남달현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송석구 전 국제신문 발행인	유종관 전 세계일보 발행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성준 한국ABC협회 회장	이영만 전 경향신문·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정우 전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현경 CJ그룹 상무	이재우 관훈클럽 사무국장	임종건 전 서울경제 발행인	장준봉 전 경향신문 발행인
언론유관단체	이중경 한국언론진흥재단 검사역실장	오학열 브릿지경제 지회장	
	이중세 대한언론인회 이사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이태영 대한언론인회 감사		

강원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모금

모금기간 4월 8~30일
신문협회 회원사들은 4월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일원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피해이웃돕기 성금모금을 8일부터 시작했다.
회원사들은 4월 8일~12일 '강원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 공동사고를 게재하고, 재해구호협회가 개설한 성금모금 계좌와 인터넷·휴대폰 문자·ARS 기부 방법 등을 안내했다. 모금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회원사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통한 직접모금은 하지 않으며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정한 계좌를 통해서만 성금을 모금한다.

“동아·기자다움” 매일 실천

동아일보 창간 99주년 기념식
동아일보(발행인 임채정)는 4월 1일 창간 9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김재호 사장은 기념사에서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고, 때로는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동아일보를 지켜온 선배들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뒤, “동아 100년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동아다움과 기자다움’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벽되지 않는 진실 추구”

뉴스1 창간 8주년 기념식
뉴스1(발행인 이백규)은 5일 창간 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발행인은 “신문의 낯은 우리나라 모든 언론인에게 뜻 깊은 날이면서, 창간을 맞이한 뉴스1 식구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날이다”며 “‘사실 앞에 겸손한 언론’을 표방하고 여덟 해를 달려온 것처럼, ‘편벽(偏僻)되지 않는 진실 추구’의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또 한걸음을 내딛자”고 강조했다.

“감동·온기 있는 신문들”

경북도민 창간 15주년 기념식
경북도민일보(발행인 김찬수)는 3월 29일 창간 15주년 기념식(사진)을 열었다. 김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지난 15년 동안 임직원들의 땀과 열정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며 “도민들과 함께 감동과 온기가 있는 신문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회원사 동정

한경, 육군본부와 업무협약

한국경제(발행인 김기웅)는 4일 육군본부와 용산육군회관에서 장병 창업·취업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Dream), 육군 드림’ 사업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경제는 2012년부터 국군과 기업의 자매결연을 도와주는 1사1병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헤럴드, 더블유에스파트너스와 MOU

헤럴드경제(발행인 권충원)는 3월 27일 본사에서 경영 컨설팅회사인 더블유에스파트너스(WS PARTNERS)와 뉴스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더블유에스파트너스는 헤럴드 및 헤럴드 자회사의 뉴스 콘텐츠를 러시아어로 송출하는 서비스를 담당한다.

강원도민, 신문보내기 캠페인

강원도민일보(발행인 김중석)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향인사, 다문화가정 등에게 독지가의 이름으로 강원소식을 알리는 ‘2019년 신문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1구좌는 17만원(1년 구독료)이며, 신청기간은 4월 1일~7월 31일.

경기, ‘2019 과천마라톤대회’

경기일보(발행인 신항철)는 ‘2019 과천마라톤대회’를 5월 12일 개최한다. 참가종목은 하프코스, 10km, 5km이며, 접수마감은 4월 5일이다.

경인,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와 MOU

경인일보(발행인 김화양)는 3월 27일 본사에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와 도민 법률 서비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법무사회는 실제 법률문제 해결사례 및 정책 제안 등을 경인일보 지면을 통해 소개하게 된다.

개하게 된다.

영남, 대구불교방송과 업무협약

영남일보(발행인 노병수)는 2일 본사에서 대구불교방송과 지역 언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구·경북 콘텐츠 소재 발굴 및 개발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정보 교류 및 교육·기술 자문 지원 △이미지 광고 교환과 행사보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부매일, 청주대 신방과와 업무협약

중부매일(발행인 이정)은 2일 본사에서 청주대 신문방송학과와 지역 언론 활성화 및 콘텐츠 제작 상호협력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청주대 학생들은 중부매일 기자들에게 교육을 받게 되며, 중부매일은 학생들이 교육 후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아 지역 독자들에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발행인 동정

이동현 경향신문 발행인은 6일 파주시 교하야구장에서 열린 ‘2019 파주시장기 경향신문 봄날야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시타를 했다.

신항철 경기일보 발행인은 6일 팽택 이충례포츠공원 일원에서 열린 ‘2019 팽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한국선 경북일보 발행인은 5일 경주 역사유적지구 내 첨성대 옆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9 경북 농특산물 진수성찬 쌀·술·떡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이후혁 대구일보 발행인은 7일 포항 내연산과 죽도시장 일원에서 열린 ‘내연산 전국산행대회 및 죽도시장 장보기 투어’에 참석해 대회를 했다.

이상택 매일신문 발행인은 3월 29일 울릉군 와달리 휴게소에서 열린 ‘울릉도 일주도로 준공식’에 참

석해 개통을 축하하는 버튼을 눌렀다.

김진수 부산일보 발행인이 2일 (사)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새 대표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광고협의회 회장에 정선구 중앙 광고사업본부장



광고협의회는 4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정선구(사진)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0년까지다.

신문협회보

회장 이병규
사무총장 허승호
발행처 한국신문협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세계...
최고의 신문인쇄
KORINK가 약속 드립니다.

